

2. 세시풍속

세시풍속의 '세'는 한 해, '시'는 사계절을 뜻한다. 즉, 세시풍속이란 1년의 사시절에 관습적으로 행하는 생활과정으로 주기전승의 의례적인 행동양식 또는 생활양식을 가리킨다. 단조로운 월령의 생활문화에 활력을 주고 사회집단의 결합과 통일 친화를 강화하며 삶의 규범과 질서를 준다.

세시풍속을 다른 말로 연중행사라고 하듯이 한 해 동안 행해지는 자연신앙·조상숭배 등의 주술종교적인 행위와 각종 놀이, 관습 등이 함께 한다. 원시 사고에서는 1년을 주기로 하여 우주가 신생과 소멸을 거듭하는 것으로 인지했다. 다시 말해서 연대기적인 시간에 따라 태초로부터 현재, 미래로 연속된 자연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재창조 과정을 거쳐 세상은 늘 재생되어 간다는 것이다. 한 해의 시말은 곧 세계 창조가 거듭되는 매듭이며, 창조시의 풍요와 건강이 점차 쇠미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다시 원초적인 상태로 되돌아가 풍요와 건강을 회복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시관념이다. 이러한 지평 위에서 신년 의례가 베풀어지며, 신화적인 사실이 역사적 사실에 선행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우주론적 순환은 민족 또는 종족에 따라서 각기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우계와 건계로 나누어지는 열대지역이나 또는 항상 겨울만 계속되는 양극지대에서는 각기 자연환경에 맞춰 주기가 달리 나타나고 있고, 해를 구성하는 달의 수나 세수(歲首)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주기의 간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재생관념이 흐르고 있다.

한 해가 그 자체로 시간과 더불어 소멸한다고 하는 이러한 원시관념 아래 이를 구성하는 달은 계단이나 사다리꼴로 비유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달의 개념보다는 자연력이나 생산력이 우선하여 통용되었을 것이다. 미개한 수렵채취시대로부터 인류사의 단지 2%에 지나지 않는 농경기의 초기에도 물론 자연력이나 생산력이 우세하였을 것이다. 인지가 발달하고 문화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인간은 점차 자연적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생산활동을 조장하려는 욕구와 기술 및 필요성 때문에 달력에 의거하여 세시를 결정하고, 이전에 비해 자연력이나 생산력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낮아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으며, 시행착오가 뒤따랐다.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자연에 의해 인간생활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인위적인 척도로서 자연을 규제하려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그 이전의 자연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문화란 항상 기존의 터전 위에 쌓이는 것으로 이러한 혁명적인 발견도 자연력이나 생산력을 완전히 망각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상호관계를 지속하면서 생산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농경사회에 이르러서는 파종, 제초, 수확, 저장 등이 계절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역법을 정한 후에도 계속해서 자연과의 긴밀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자연과의 긴밀성을 생산력 향상이라는 필요성에 따라 주술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연중행사가 베풀어졌다. 이것은 신앙의례적인 행사로서 연중에 관습적으로 되풀이하여 행해지는 주기성을 갖는다. 따라서 한 인간이 거치는 삶의 과정을 통과의례라고 부르는 것과 대비시켜볼 때 세시풍속은 자연적이고 집단적인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다.

세시풍속은 세사, 월금, 시금 등으로도 불린다. 오늘날 잊혀지거나 약화되어버린 명절이 많

고 대표적인 몇 개의 큰 절일만이 지켜지고 있는 현상이다. 그마저도 전통적인 습속은 구습이라 하여 존망의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런 즈음에 우리 선조의 미풍양속을 찾아보고, 자연과의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왔고 또 순응했는가 하는 점들을 음미해보는 것도 현 시점의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새삼스럽게 재론할 여지도 없는 것이지만, 특히 순천지역은 고래로 농업을 주업으로 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세시풍속의 의미는 한층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순천지역의 세시풍속은 명칭이나 기일은 다른 지역과 거의 동일하나 그 내용은 다소 상이한 점이 없지 않다. 여기서는 세시풍속이 갖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고자 한다.